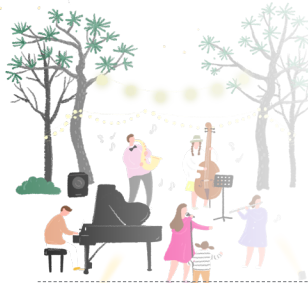


## 별을 보며 꿈을 키우고, 음악 속에서 마음이 자라는 시간



아이들이 자연과 예술 속에서 자라는 밤입니다.  
이번 『별 헤는 밤, 음악으로 물들다』는  
천체관측과 음악회를 중심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정의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봉동초만의 특별한 정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어둠 속에서 별을 헤아리며  
아이들은 우주의 신비로움과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는  
감정의 여백과 따뜻한 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걷는 친구들,  
손을 맞잡은 부모님,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이웃 주민들 속에서  
아이들은 공동체의 품 안에서 자란다는 든든함을 느낍니다.

이번 밤은 단지 하루의 추억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 깊숙히 남을 정서적 울림의 순간이 될 것 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동경과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윤동주, 『별 헤는 밤』中 -

•일시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봉동초등학교

별  
헤는  
밤  
음악  
이로  
물들  
다

정서 힐링 콘서트

## 초대의 글

별빛이 물드는 밤,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봉동초는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인 수업혁신과 교육협력 강화에 발맞추어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정서 과목을 개발하였으며 과학중점학교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뜻한 봄바람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5월, 지역 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함께하는 '별 헤는 밤' 정서 힐링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아이들의 꿈을 더 멀리 비추어 줄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정서적 울림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별을 올려다보는 그 시간,  
부모와 이웃이 함께 웃고 노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따뜻한 공동체, 더 아름다운 교육의 의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후원해주신 (사)전북미래인재교육진흥원을 비롯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발걸음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무는 별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봉동초등학교장 **장 남 덕**

## 프로그램 안내

### 1부 음악회

별 하나에 사랑 19:30 ~ 20:30, 대강당



1. O mio babbino caro -  
오페라 Gianni Schicchi  
소프라노 **송난영**

2. 아름다운 나라  
소프라노 **송난영**



3. 지금 이 순간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바리톤 **석상근**

4. Volare Cantare -  
이태리 칸초네  
바리톤 **석상근**



5. 챔피언 -  
싸이  
트로트가수 **김성민**

6.님과 함께 -  
남진  
트로트가수 **김성민**

7. 축배의 노래 -  
Brindisi  
소프라노 **송난영**, 바리톤 **석상근**

8. O sole mio (오 나의 태양) -  
이태리 칸초네  
소프라노 **송난영**, 바리톤 **석상근**

9. 나는 반딧불 -  
황가람  
봉동초 교사 **박중복**

10. 별 헤는 밤 -  
고우림  
봉동초 교사 **박중복**

11. Tears -  
소찬휘 (색소폰 연주)  
봉동초 교사 **송은선**

### 2부 천체 관측

별 하나에 추억 19:30 ~ 20:50, 운동장

### 3부 캠프파이어

별 하나에 동경 20:50 ~ 21:30, 운동장

1. 캠프파이어
2. 완주 어린이 취타대 행진